

정책자료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1994. 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と 對外經濟政策課題

1994. 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유럽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EC가 유럽연합(EU)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EU 12개국과 유럽자유貿易聯合(EFTA) 6개국에 의한 세계최대의 單一市場인 유럽經濟地域(EEA)이 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美 洲에서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이 타결되어 1994年 1月 1日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北美지역 국가간의 投資 및 交易이 활성화될 것이며, 그 결과로 NAFTA 회원국들과 교역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이 상대적인 不利益을 감수해야 될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全世界的으로 地域主義 추세가 점차 深化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다행히도 世界貿易秩序의 대폭적인 개편을 목표로 지난 7년간 진행되어 왔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결국 타결되면서 그 동안의 무역전쟁 우려에서 벗어나 活潑한 國際交易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環境 문제 등 새로운 多者間 通商規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開途國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國際交易環境의 변화속에서 94년도 세계경제는 일본, EC를 중심으로 93년보다 다소 회복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선 최근 景氣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는 美國經濟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93년중 극심한 침체를 나타내었던 日本과 유럽경제도 94년에는 失業率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中國등 東아시아지역경제와 멕시코 등 中南美경제의 高度成長과 동유럽국가들의 市場經濟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 輸出市場에서 차지하는 이들 지역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本 報告書는 94년 世界經濟 展望數値의 제시보다는 여러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을 소화하여 94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世

界經濟를 보는 視覺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政策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묶어 본 것이다. 94년에도 우리의 對外經濟政策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은 많다. UR협정의 발효 및 후속협상과 관련된 과제, OECD 가입 기반조성, 國際環境問題, NAFTA발효에 따른 대응, APEC의 활성화와 貿易投資委員會(CTI)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東北亞지역 경제협력과 美國, 日本, EU, 中國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협력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散在해 있다. 本院은 이러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徐壯源,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金益洙, 金廷洙, 成克濟, 兪鎮守, 李載星, 李昌在, 任千錫, 崔仁範, 韓宅煥박사 등이 심층 分析하고 있거니와 그 중 核心되는 부분만을 간추려 여기에 편집하여 보았다. 이 책자가 1994年度 세계경제를 眺望하는데 있어 政府당국자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4年 1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9
1. UR協商의 妥結과 이에 따른 새로운 貿易秩序의 형성	9
2. 地域主義 趨勢의 지속	10
3. 새로운 市場의 대두	11
4. 環境問題의 重要性 증대	12
II. 1994年 世界經濟 展望	15
1. 景氣展望	15
2. 國際金利·換率·油價 展望	19
3. 主要國別 經濟展望	22
III. 우리經濟에의 政策示唆點	31
1. 國際競爭의 격화	31
2. 國內制度 및 政策의 積極的인 先進化	32
3. 環境 등 新分野의 國際協商 對備策 강구	33
4. 回復局面의 世界經濟 활용	33
5. 對外經濟協力 강화	34
IV. 主要 課題別와 對應戰略	35
1. UR協定의 發效 및 後續協商	35
2. OECD 加入基盤 造成	37
3. 國際環境問題	41
4. 韓·美 經濟協力	45
5. 韓·日 經濟協力	50

6. 韓・EC 經濟協力	54
7. 韓・中 經濟協力	59
8. NAFTA에의 對應	63
9. 亞・太 經濟協力	66
10. 東北亞 經濟協力	72
V. 要約	77

〈表目次〉

〈表 I -1〉 EEA, NAFTA 및 AFTA의 主要 現況	11
〈表 II -1〉 主要國의 實質GDP成長率 推移 및 展望	16
〈表 II -2〉 主要國의 失業率 推移 및 展望	17
〈表 II -3〉 主要國의 消費者物價上昇率 展望	18
〈表 II -4〉 世界貿易의 伸張率 展望	19
〈表 II -5〉 主要國의 短期金利 推移 및 展望	20
〈表 II -6〉 主要 換率의 推移 및 展望	21
〈表 II -7〉 國際油價의 推移 및 展望	22
〈表 II -8〉 94年度 美國經濟 展望	23
〈表 II -9〉 94年度 日本經濟 展望	24
〈表 II -10〉 94年度 EU經濟 展望	26
〈表 II -11〉 94年度 中國經濟 展望	27
〈表 II -12〉 94年度 開途國經濟 展望	28
〈表 IV -1〉 韓國의 對美貿易 推移	45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UR協商의 妥結과 이에 따른 새로운 貿易秩序의 형성

-UR협상 타결의 진정한 의미는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인하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향후 안정된 國際貿易秩序를 확립할 수 있다는 데에 있음.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냉전이 終熄됨에 따라 美國經濟의 절대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低下되고 EC와 日本의 경제력이 급상승하는 등 경제적 多元化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야기될 수 있는 경제대국간 貿易摩擦을 仲裁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마련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世界交易秩序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UR協定은 향후 世界交易秩序를 안정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役割을 할 것임.

○과거의 GATT가 단순한 國際協定이어서 구속력이 약하였다는 점을 개선하여 UR協定에서는 무역에 대한 UN이라고 할 수 있는 強力한 世界貿易機構(WTO)를 설립하였음.

○한편 UR協定은 기존의 GATT가 적절히 다루지 못하였던 纖維, 農産物 분야를 多者間 體制에 흡수시키고 東京協定(MTN)의 많은 부분을 多者化시켰으며, 또한 서비스, 知的財産權과 같은 새로운 분야도 포괄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한 것임.

-또한 世界經濟秩序의 대폭적인 개편을 목표로 7년간이나 進行되었던 UR協定이 타결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多者間協定이 終了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계속 協商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야 할 것임.

- UR협상으로 고조된 자유화의 轉機(momentum)를 유지하기 위해 단시일내에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을 추진하자는 主張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GATT라운드의 日誌를 보면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계속하여 협상이 進行되었음.
- 또한 이미 一部에서는 次期 라운드로서 그린라운드(環境問題 관련 協商)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競爭政策(공정거래제도), 勤勞基準, 研究開發(補助金 支給) 등의 議題가 舉論되고 있음.

2. 地域主義 趨勢의 지속

- UR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域外國을 차별하기 위한 地域主義化 경향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隣接國 또는 經濟的 利害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地域主義 또는 地域內 協力強化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는 地域的인 經濟協力 움직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EU) 12개국과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6개국가들의 경제블럭인 유럽經濟地域(EEA)이 1994년 1월 1일부터 공식출범함으로써 世界貿易의 44%를 차지하고 GDP 규모가 7兆 5,010億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 또한 GDP 6兆 7,700億달러 규모의 美國, 캐나다, 멕시코 3국간 北美自由貿易地域(NAFTA)도 1994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됨으로써 15년내에 NAFTA회원국간의 貿易 및 投資障壁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 ASEAN국가들도 93년 1월부터 ASEAN自由貿易地域(AFTA)을 출범시켰

으며, 94년 1월 1일부터는 이에 따른 共同特惠關稅가 시작되어 향후 15년 간에 걸쳐 이들 국가간의 關稅는 0%-5%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임.

- 亞·太地域에서도 이와 같은 무역블럭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창설된 亞·太經濟協力(APEC)의 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94년에도 APEC 指導者會談이 열릴 예정으로 있음.

〈表 I-1〉 EEA, NAFTA 및 AFTA의 主要 現況(1992년 기준)

	EEA	NAFTA	AFTA
GDP(달러)	7조 5,010억	6조 7,700억	3,380억
人口(명)	3억 7,200만	3억 6,000만	3억 3,200만
무역규모(달러)	3조 2,940억	1조 3,300억	2,070억

3. 새로운 市場의 대두

- 아세안국가들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지역 및 칠레 등 중남미국가들의 高度成長에 따라 이들 市場의 중요성은 1994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93년 13% 수준의 成長率을 나타낸 중국의 輸入增加率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세안국가들 역시 7% 이상의 고도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東아시아지역 경제는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經濟의 成長에 따라 輸出市場으로서의 중요성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임.
- 멕시코, 칠레 등 일부 중남미국가들도 巨視經濟의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輸入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東유럽국가들의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이 안정과 개혁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어 대부분 국가들이 94년도에는 플러스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93년중 40%가 넘는 貿易의 伸張率을 나타낸 이들 국가들의 國際貿易 및 輸出市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市場經濟로의 전환과 經濟回復 가시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 環境問題의 重要性 증대

-94년에는 중요한 對外經濟문제의 하나로서 環境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는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UR협상 타결을 위하여 보류되어 왔던 環境문제 등 새로운 多者間 通商規範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그린라운드의 출범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임.

○ 한편으로는 1992년 6월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環境開發會議 (UNCED: Unites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議題 21」과 氣候變化協約 등 國際環境協約에서 다루어진 國際環境規範의 履行 義務 事項이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그 실적이 평가되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임.

-그린라운드로 지칭되는 UR 이후의 貿易-環境 문제 관련 多者間 協商은 신설될 WTO 내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貿易-環境委員會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을 근거로 하는 貿易規制條項을 多者間 通商規範내에 신설하는 문제와 함께 각국의 國內 環境措置가 貿易障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화를 도모하는 두가지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여기서 만약 環境原價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相計關稅, 製造工程의 環境適合性에 근거한 技術障壁의 容認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는 開途國에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임.



II. 1994年 世界經濟 展望

1. 景氣展望

(1) 景氣의 완만한 回復

-90년대 들어 조정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는 1993년 들어 미약하나마 回復勢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主要國間 協調體制의 약화, 財政赤字로 인한 景氣浮揚策의 한계, 독일의 高金利政策 등으로 인하여 成長의 부진과 심각한 失業事態를 나타내었음.

-93년중 이와 같이 沈滯를 나타내었던 世界經濟는 1994년 들어 일본, 유럽聯合(EU)을 중심으로 다소 回復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民間消費와 住宅投資 등의 증가로 인하여 최근 回復局面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경제는 93년 전체적으로 약 2.6%-2.8% 수준의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됨. 94년 들어 미국경제는 消費者信賴度의 회복과 산업생산의 증가를 나타내겠지만 政府支出의 삭감, 增稅 등 부정적인 요소도 많아 93년보다 다소 높은 3.0%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93년중 제로에 가까운 成長率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일본경제는 그 동안의 民間企業 投資부진이 94년에도 이어지겠지만, 엔貨 弱勢가 예상되고 所得稅 減免에 따른 消費의 증가, 景氣浮揚策에 따른 公共投資의 增加가 예상되어 94년중 1.5% 내외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EU경제도 그동안 계속된 金利引下의 효과 등으로 94년에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내어 연간으로 1.6% 수준의 成長率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景氣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雇傭事情은 개선되지 못하고 12%에 달하는 失業率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또 하나 9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은 중국 등 東아시아 지역과 멕시코 등 中南美경제가 高成長을 지속할 것이고, 대부분의 東유럽국가들의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 또한 안정과 개혁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OPEC회원국의 과잉생산, 석유수요의 부진 등으로 인한 油價의 하향 안정세가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국가들의 金利引下가 예상되는 것도 세계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表 II-1〉 主要國의 實質GDP成長率 推移 및 展望

(단위 : %)

	1991	1992	1993(전망)		1994(전망)	
			IMF	DRI	IMF	DRI
先進國	0.5	1.7	1.1	0.9	2.2	2.6
美國	-0.7	2.6	2.7	2.5	2.6	3.2
日本	4.0	1.3	-0.1	0.9	2.0	3.1
獨逸	1.7	1.9	-0.6	-2.0	1.2	1.1
E U	0.8	1.1	-0.2	-0.6	1.6	1.6
開途國	4.5	5.8	6.1	5.8	5.5	5.5
舊共產圈國家	-12.0	-15.4	-10.2	-	-1.1	-
世界全體	0.6	1.7	2.2	1.7	3.2	3.1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3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3/4 1993

- 그러나 94년중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서도 世界景氣의 본격적인 回復에는 많은 不確實性이 남아 있음.

- 먼저 주요 선진국 企業과 消費者의 과중한 負債 그리고 거품의 붕괴효과

지속 등으로 企業과 消費者들의 信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94년중 失業率 증가가 예상되는 일본과 EU의 경우 民間消費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막대한 財政赤字는 財政支出의 확대를 통한 景氣浮揚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財政支出 삭감, 增稅 등을 통한 財政赤字 감축노력이 단기적으로 景氣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금년에도 세계적인 貿易不均衡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失業率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保護主義的인 움직임이 강화되어 世界貿易의 신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2) 失業率의 持續的인 增加

-94년도 세계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失業率은 일본과 EU를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EU의 경우 勞動市場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금년도 失業率이 12%에 달

〈表 II-2〉 主要國의 失業率 推移 및 展望

(단위 : %)

	1991	1992	1993(전망)		1994(전망)	
			IMF	DRI	IMF	DRI
先進國	7.1	7.8	8.3	-	8.4	-
美國	6.8	7.4	6.8	7.0	6.5	6.6
日本	2.1	2.2	2.5	2.5	2.7	2.6
獨逸	6.7	7.7	9.3	9.4	10.0	10.9
EU	9.2	10.2	11.6	-	12.0	-

資料 : 〈表 II-1〉과 동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失業문제는 財政赤字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保護主義的인 성향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3) 物價의 持續的인 安定

— 油價 및 源資材價格의 안정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경제의 회복 또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94년에도 낮은 물가상승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市場經濟로의 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舊共產圈國家의 物價上昇率이 크게 둔화되고 開途國의 物價上昇率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表 II-3〉 主要國의 消費者物價上昇率 展望

(단위 : %)

	1991	1992	1993(전망)		1994(전망)	
			IMF	DRI	IMF	DRI
先進國	4.6	3.3	3.0	3.2	2.7	3.3
美國	4.2	3.0	3.0	3.2	2.8	3.2
日本	3.3	1.7	1.2	1.0	0.8	1.7
獨逸	4.8	4.7	4.6	4.6	2.9	4.2
E U	5.4	4.5	3.8	3.5	3.5	3.7
開途國	35.7	38.8	43.8	69.5	34.7	54.3
舊共產圈國家	103.2	786.0	581.5	-	138.1	-

資料 : 〈表 II-1〉과 동일

(4) 世界貿易의 伸張勢 擴大

— 세계경제의 沈滯에 따라 금년중 부진을 면치 못하였던 世界貿易은 94년 들

어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에 힘입어 先進國을 중심으로 伸張率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94년 世界貿易의 伸張率은 5.0-6.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表 II-4〉 世界貿易의 伸張率 展望 (단위 : %)

	1992	1992	1993(전망)		1994(전망)	
			IMF	DRI	IMF	DRI
先進國	2.5	3.7	1.2	1.8	3.4	5.3
美 國	0.7	10.9	8.8	10.1	4.9	9.0
日 本	3.8	-0.7	4.1	-1.7	6.2	3.5
獨 逸	14.4	-4.3	-4.5	-4.0	1.2 ²⁾	4.0
E U	5.4	2.0	-2.9	-1.3	2.3	3.9
開發國	9.7	10.5	9.3	12.5	9.1	9.5
世界全體 ¹⁾	2.4	4.6	3.0	4.2	5.0	6.3

註 : 1)은 貿易增加率, 나머지는 輸入增加率

2)는 서독기준

資料 : 〈表 II-1〉과 동일

2. 國際金利 · 換率 · 油價 展望

(1) 주요국의 金利 展望

—各種 經濟指標들이 미국경제의 회복조짐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의 短期金利는 向後 上昇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1994년도 미국경제의 성장율이 미국의 잠재성장율 2.5%-3.0%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93年中 長·短期金利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日本의 金利는 景氣의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金利引下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존하고는 있으나, 금년에는 景氣의 회복에 따라 완만하나마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는 대조적으로 93년에 계속되었던 獨逸 등 유럽국가들의 短期金利 下落勢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침체상태에 있는 景氣의 浮揚을 위해 추가적인 政策金利 引下措置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表 II-5〉 主要國의 短期金利 推移 및 展望¹⁾

(단위: %)

	92년	93.6	93.12	94.3	94.6	94.9	94.12
유로달러	3.44	3.31	3.38	3.38	3.62	3.89	4.07
유로엔	3.81	3.31	2.09	2.40	3.10	3.80	4.50
유로마르크	8.75	7.56	5.94	5.75	5.50	5.25	5.00

註: 1) 3개월물 LIBOR금리, 94년 수치는 전망치

資料: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Oct. 1993.

(2) 달러貨의 強勢

-93년중 강세가 지속되었던 엔貨는 日本경제의 침체, 淸國의 불안, 그리고 미국경제의 회복으로 인하여 93년말 이후 약세로 반전되었는데, 이와 같은 달러貨에 대한 엔貨의 약세는 94년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 이는 日本의 景氣回復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당분간 金利引上이 어려운 반면, 미국의 경우 景氣回復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년중 金利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日本의 貿易黑字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또한 엔貨가치의 하락을 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엔貨의 약세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獨逸의 마르크貨도 94년 들어 당분간 달러貨에 대해 다소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금년 들어 독일의 利率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金利리上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表 II-6〉 主要 換率의 推移 및 展望

	93.3	93.6	93.9	93.12	94.3(전망)		94.9(전망)	
					WEFA	DRI	WEFA	DRI
엔/달러	115.0	107.0	106.0	111.9	116.0	114.0	122.0	113.5
마르크/달러	1.610	1.702	1.635	1.735	1.720	1.740	1.740	1.730

資料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Oct. 1993.

DRI, *The Foreign Exchange Bulletin*, Oct. 1993.

(6) 油價의 안정세

—93年中 國際油價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原油需要不振과 OPEC 會員國들의 畵타량 초과생산 및 非OPEC 産油國들의 生産확대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었음.

—向後 國際油價는 계속되는 공급과잉 속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供給面에서 OPEC 産油量 生産合意의 불이행, 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웨이트의 生産시설 확장, 英國과 노르웨이의 北海産原油 生産擴大, 이라크의 原油輸出 재개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반면, 開途

國의 需要停滯와 주요 先進國의 景氣沈滯로 인한 需要減少로 급격한 需要增加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그러나 94년중 세계경기의 회복, 舊蘇聯의 석유사정 악화에 따른 공급감소 등 油價상승요인도 있으며, 油價가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OPEC회원국의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도 있음.

〈表 II-7〉

國際油價의 推移 및 展望

(단위: 달러/배럴)

	90년	91년	92년	93년(전망)	94년(전망)	95년(전망)
OPEC 평균유가	21.2	17.0	16.3	14.8	14.9	15.1

資料: World Bank, International Economics Dept., Nov. 1993.

3. 主要國別 經濟展望

(1) 美國經濟의 回復勢 지속

- 1993년초 뚜렷한 成長鈍化 趨勢를 나타내었던 美國經濟는 93년 3/4분기중 2.9%의 GDP成長率(전기비 연율)을 기록하는 등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美 行政府는 이와 같은 成長이 財政赤字減縮에 따른 低金利基調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美 行政府는 美國景氣가 回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民間經濟專門家들도 향후 미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휘발유세 인상 등 增稅에 따른 民間消費支出의 부진, 美 聯準(FRB)의 金利인상 가능성, 그리고 財政赤字 감축을 위한 財政支出의 삭감 등으로 인하여 94년도 미국

경제의 성장율은 93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展望됨.

○ 94년도 미국경제의 成長展望은 예측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대체로 93년보다 다소 높은 3.0%의 成長率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94년도 미국의 失業率은 작년보다 다소 낮은 6.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表 II-8〉 94年度 美國經濟 展望

	1991	1992	1993(전망)		1994(전망)	
			IMF	OECD	IMF	OECD
실질GDP성장율(%)	-0.7	2.6	2.7	2.8	2.6	3.1
실업율(%)	6.7	7.4	6.8	6.9	6.5	6.5
소비자물가상승율(%)	4.2	3.0	3.0	-	2.8	-
무역수지(10억달러)	-73.8	-96.1	-136.0	-131.6	-154.5	-151.8
경상수지(10억달러)	-8.3	-66.4	-111.6	-105.7	-130.0	-134.0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3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93

(2) 日本經濟의 完만한 回復

— 일본의 景氣는 93년 恩貨價値의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소비자심리의 위축, 이상저온에 따른 농업생산의 감소, 건설업계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인한 공공공사의 지연등으로 극심한 景氣의 沈滯를 나타내었음.

○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93년 4월 사업규모 약 13.2兆엔에 달하는 종합경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약 6兆2,000億엔에 달하는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음. 또한 일본은행은 지난 9월 21일 再割引率을 사상 最低水準인 1.75%로 引下하였음.

- 금년 들어 일본경제는 景氣浮揚策과 低金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엔貨가 다소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의 所得稅 減免 또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2/4분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94년도 일본경제의 實質GNP成長率은 93년보다 높은 1.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93년 상반기중에는 企業의 雇傭調整이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失業率은 3.2% 정도를 기록,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93년보다 惡化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93년중 景氣沈滯로 인한 輸入의 減少, 엔高에 의한 달러표시 수출금액의 증가 등으로 黑字가 크게 擴大되었던 일본의 貿易收支는 금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1,400-1,500億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表 II-9〉

94年度 日本經濟 展望

	1991	1992	1993(전망)		1994(전망)	
			IMF	OECD	IMF	OECD
실질GDP성장율(%)	4.0	1.3	-0.1	-0.5	2.0	0.5
실업율(%)	2.1	2.2	2.5	2.5	2.7	2.9
소비자물가상승율(%)	3.3	1.7	1.2	-	0.8	
무역수지(10억달러)	103.0	132.3	146.7	144.7	150.3	138.0
경상수지(10억달러)	72.9	117.6	140.6	140.6	141.3	136.3

資料 : 〈表 II-8〉과 동일

(3) EU經濟의 완만한 回復과 失業率 增加

- 유럽연합(EU)국가들은 93년중 지난 75년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과 10%를 상회하는 失業率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沈滯를 겪고 있음.

○ 이는 90년 이후 市場統合에 대비한 投資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投資增加率이 급격히 둔화되고, EU 勞動市場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高失業率이 지속되고 있으며, 독일통일에 따른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高金利가 지속되고 있고, 각국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경기부양책의 실시가 어려웠기 때문임.

- 94년 들어 EU經濟는 金利의 추가인하 가능성 이외에도 世界經濟의 성장회복에 따른 世界貿易의 擴大, EU 通貨의 弱勢에 따른 全般的인 競爭力 向上, 消費者 및 企業信賴度의 提高 등으로 인하여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景氣回復의 幅은 그리 크지 않고 완만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實質賃金의 정체, 失業率의 상승, 增稅 등의 영향으로 실질가처분소득이 減少함으로써 民間消費의 급격한 增大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 93年中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EU의 94년도 實質GDP成長率은 1.0%~1.5%를 기록할 전망이다. 國別로는 英國과 아일랜드의 成長率이 매우 높아서 각각 2.9%,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1%내외의 實質成長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景氣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EU 勞動市場의 硬直性으로 인하여 EC의 雇傭사정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94년중 EU의 失業率은 12%에 육박하여 1993年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 國別로는 英國의 고용사정이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노동시장의 개혁을 바탕

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EU 主要國들의 失業率은 상승추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表 II-10〉

94年度 EU經濟 展望

	1991	1992	1993(전망)		1994(전망)	
			IMF	OECD	IMF	OECD
실질GDP성장율(%)	0.8	1.1	-0.2	-0.3	1.6	1.1
실업율(%)	9.2	10.2	11.6	11.3	12.0	12.0
소비자물가상승율(%)	5.4	4.5	3.8	-	3.5	-
무역수지(10억달러)	-37.5	-19.1	-12.1	38.9	-10.4	52.7
경상수지(10억달러)	-67.9	-63.9	-60.4	-19.9	-53.4	-3.1

資料 : 〈表 II-8〉과 동일

(4) 中國經濟의 高度成長 지속

—中國經濟는 93년 약 13%의 고도성장을 나타낸 가운데 인플레이와 貿易收支의 악화를 겪고 있음.

- 93년중 工業生産增加率도 19.5%, 固定資産投資增加率(경상가격)은 47%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 93년중 3/4분기까지 중국의 輸出은 6.6% 증가에 그친 반면, 輸入은 29.9%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貿易收支도 지난 3년간의 黑字에서 赤字로 반전하여 93년중 약 80억달러(통관 기준)의 赤字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全國 小賣物價指數는 93년중 13% 상승하여 8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都市 生活費指數도 19.5%의 높은 상승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中國은 94년중 財政, 金融, 國有企業 및 投資制度 등 핵심적인 부분의 개혁

- 을 실시하려고 함으로써, 개혁 과정상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
- 특히 稅目에 따른 中央과 地方간의 稅收分割(이른바 分稅制)을 통하여 財政制度의 명료화와 中央 財源의 확충을 꾀하는 財政制度의 개혁은 中央-地方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 또한 中央銀行의 巨視統制機能 강화, 정책금융을 담당할 特殊銀行의 설립, 기존 專業銀行의 상업은행화 등의 金融改革과 二重 換率體制의 單一化도 금년중 실시될 중요한 개혁이 될 것임.
 - 또한 國有企業의 株式制 도입 확대, 金融改革과 연계하여 투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投資決定 메카니즘의 개혁도 추진될 것으로 보임.

-巨視經濟의 측면에서 中國 經濟는 94년에도 전반적인 고성장 추세와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금년에도 10% 내외의 高度成長과 10%에 가까운 全國 小賣物 價上昇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에는 輸出增加勢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輸出이 15% 가량 증가한 1,060억달러(통관기준)를 기록할 전망이며, 輸入은 17% 가량 증가한 1,170억달러(통관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러한 예측은 中國이 보다 선별적이고 완화된 緊縮政策을 성공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만약 中央이 각 지방의 맹렬한

〈表 II-11〉 94年度 中國經濟 展望

	1991	1992	1993(전망)	1994(전망)
실질GDP성장율(%)	7.7	12.8	13.0	10.0
소매물가상승율(%)	2.9	6.4	13.0	9.5
무역수지(10억달러)	8.1	4.4	-8.0	-11.0

資料: 中國國家統計局

投資擴大 의욕을 적절히 제어하는데 실패한다면, 금년 상반기중 위 예측보다 더 높은 성장율, 물가상승율, 수입증가율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 들어 급격한 景氣萎縮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음.

(4) 東南아시아地域 등 開途國의 활발한 成長勢 지속

— 금년 들어 開途國經濟는 先進國에 비해서 높은 약 4.0% 수준의 성장율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대부분의 아세안국가 및 칠레 등 일부 남미국가들은 선진국의 景氣沈滯, 國際收支의 악화, 경제의 構造調整 등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과정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온 舊社會主義국가들도 금년에는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 한편, 그 동안 開途國 및 舊社會主義국가들의 경제안정을 크게 위협해온 物價問題는 금년 들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表 II-12〉

94年度 開途國經濟 展望

(단위 : %)

	1991	1992	1993(전망)	1994(전망)
실질GDP성장율				
開途國	3.1	3.2	4.2	4.0
舊共產圈國家	-11.9	-14.7	-5.1	2.6
소비자물가상승율				
開途國	11.4	9.4	6.9	5.4
舊共產圈國家	102.8	822.3	457.3	32.5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3

- 특히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과정에서 야기된 舊社會主義국가들의 超인플레이션은 금년 들어 눈에 띄게 개선되어 50%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Ⅲ. 우리經濟에의 政策示唆點

1. 國際競爭의 격화

-UR協定에 따른 각종 市場開放措置와 投資自由化措置 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향후 世界經濟는 보다 치열한 國際競爭이 예상됨.

○ 이번 UR協定은 상품에 대한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의 緩和 외에도, 각종 서비스 市場의 開放과 投資制限措置의 撤廢, 知的財産權保護의 強化, 각종 補助金의 縮小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國境間 措置와 國內措置를 自由化해야 할 것이며 결국 國際的 競爭은 激化될 것임.

-多者間 協商 외에도 미국은 APEC을 통한 亞·太地域內 貿易 및 投資自由化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域內國家間 經濟交流과 競爭이 촉진될 것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企業들과 商品은 國內外 市場에서 보다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競爭激化는 우리기업에게 커다란 시련이자 發展의 機會를 의미함.

○ 국가간 國境概念의 弱化和 각국의 市場開放趨勢는 우리기업의 對外進出 機會가 증대되고 進出이 용이해지는 것을 의미함.

-격화된 國際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國內的인 競爭力 강화와 함께 企業活動의 國際化를 촉진하는 政策的인 노력이 요구됨.

○ 對外進出與件의 개선과 生産의 國際化 現像을 적극 활용하고, 地域主義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國內의 産業構造調整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海外投資의 活性化 方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또한 海外에서의 資本調達과 해외로의 資金移轉 등과 관련된 海外投資에 대한 劃期的인 改善이 추진되어야 함.

2. 國內制度 및 政策의 積極的인 先進化

- 새로운 國際貿易規範의 제정, 우리의 OECD 가입준비라는 對外的 측면과 함께, 國內의으로도 우리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國內制度 및 政策의 先進化·國際化가 절실히 요구됨.
- UR協商의 타결에 따른 世界貿易機構(WTO) 설립, 각종 部門別 規範의 강화와 明瞭化, 紛爭解決節次의 강화 등 변화된 國際環境에 따라 우리의 貿易關聯 國內制度 및 慣行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됨.
- 1996년을 목표로 OECD에의 加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각종 제도가 OECD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는 지에 대한 계속적인 分野別 檢討와 關聯制度의 補完作業이 필요함.
- 이러한 對外的 요인 외에도, 종전의 각종 規制的 制度和 政策이 이제는 우리의 經濟發展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과감한 撤廢가 이뤄져야 함.

3. 環境 등 新分野의 國際協商 對備策 강구

-GATT體制下에서의 마지막 협상이었던 UR協商이 종결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新라운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環境, 競爭政策, 勞動條件, 投資 등에 대한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協商對備策이 강구되어야 함.

-특히 先進國들은 環境問題를 이유로 국제무역에 대한 規制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技術水準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國際的 環境規範과 기준이 적용될 경우, 우리의 國內 產業活動, 商品輸出 및 投資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環境問題의 國際的 논의에 대한 밀접한 動向把握은 물론 관련기술의 習得·開發을 위한 長期的이고도 劃期的인 投資와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요구됨.

4. 回復局面의 世界經濟 活用

-최근 國際油價의 下落安定, 각국의 物價安定 및 金利引下 등 景氣浮揚 노력에 따라 93년중 심각한 沈滯局面을 보였던 세계경제가 94년 중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경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됨.

-國際貿易環境은 한편으로 NAFTA와 EEA의 출범 및 APEC의 강화 등 地域主義化 趨勢가 지속되는 측면도 있으나, 世界經濟 회복추세와 UR협상 타결에 따른 心理的 要因 등 긍정적인 요인도 많으며, 國際油價의 安定과 國際

金利의 低水準 등 유리한 國際經濟環境은 우리경제의 貿易收支改善, 産業構造調整을 통한 國內기업의 競爭力 제고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5. 對外經濟協力 強化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 趨勢 속에서 NAFTA와 EU 등이 域外國家에 대한 差別的 貿易블럭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작년중 씨앤티 정상 회담을 통하여 그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APEC이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에 적극 참여하고 이 地域國家와의 經濟協力 또한 강화하여야 함.

-中國 등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인도 등 南아시아地域, 멕시코 등 中南美 地域도 점차 經濟發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市場으로 등장하는 이들 국가와의 經濟外交 강화와 우리기업의 이들 국가에의 進出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93년중 우리의 對中國 輸出伸張率은 약 100%에 달하여 우리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잡았으며, 아세안과 中南美 國家와의 貿易도 급속히 伸張되고 있음.

-또한 東유럽國家 등 새로이 市場經濟體制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도 순조로이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국가와 經濟協力도 강화해야 함. 특히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베트남의 경우 급속한 制度改革과 開放 및 外國資本 유치에 노력하고 있어 베트남과의 經協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함.

IV.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UR協定の 發效 및 後續協商

(1) 現況 및 展望

-93년 12월 15일 타결된 UR協商은 94년 2월까지 각국의 讓許計劃表(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포함)의 기술적 수정작업이 완료되고 협정문의 법제화 작업을 거쳐 94년 4월 通商長官들의 署名式이 있을 예정이다.

-UR협정 署名 후에는 각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개시할 것이며, 각국 批准節次의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94년 중에 통상장관들이 다시 모여 UR協定の 발효시점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7월 1일 이전에는 發效되어야 함.

-한편 UR협상이 妥結되기는 하였으나 전 부문에서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일부 부문에서는 추가적 후속협상을 前提로 타결되었음.

-후속협상은 추가적인 協定文 협상과 양허협상으로 나누어지는데, 협정문 협상은 대부분 서비스 부문에 남아 있으나 原產地規程 부문에서도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작업이 남아 있고, 양허협상은 공산품관세인하, 農産物 국별이행 계획서, 서비스 양허계획표 협상이 남아 있음.

1) 協定文관련 追加協商

-통일원산지 規程 제정작업은 UR협정 발효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

여 3년 내에 협상을 終結(98년 7월로 예상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대비를 충실히하여 우리의 의견을 積極的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서비스의 경우에는 각국 國內規制, 긴급수입제한, 정부조달, 보조금, 서비스 교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격제도(특히 회계사)에 관한 협상을 繼續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이 중에서 緊急輸入制限 조치는 UR협정 발효 후 바로 협상을 개시하여 3년 이내에 발효되도록 規定하고 있고, 정부조달 협상도 UR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開始될 것이며, 會計士 자격제도에 관한 협상도 UR협정 발효 후 바로 작업반이 가동될 것임.

2) 讓許관련 追加協商

-양허협상은 서비스의 金融, 기본통신, 해운을 제외하고는 技術的인 수정작업을 94년 2월까지 종료하여야 함.

-공산품 關稅引下協商은 기본적인 골격만 합의되었을 뿐, 구체적 품목의 관세인하 폭과 추가적인 無稅化 및 관세조화 품목 협상이 아직 남아 있음.

-農産物 협상도 기본원칙만 합의되었고 각종 補助金의 목록, 품목별 관세상당치 및 감축폭 등에 대하여는 계속 協商하여야 함.

-서비스의 경우에는 금융, 基本通信, 해운 서비스는 각각 95년 10월, 96년 4월, 96년 6월까지 계속 協商하도록 되어 있음.

(2) 우리의 對應

—추가적인 협정문 협상은 UR協定 발효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지는 않으므로 국내사정을 면밀히 檢討하고 협상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시킴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計劃的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서비스 양허협상의 경우에는 비록 時間이 있기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크고 規制가 많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脆弱한 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화계획을 樹立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인 觀點에서의 개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방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지난 93년의 農產物協商에서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임.

—국내적으로는 94년 중에 UR協定 비준절차가 대부분 完了되어야 관련 시행령 및 세부규정의 작성을 거쳐 95년 7월의 발효에 對應할 수 있을 것임

○ 지적재산권이나 補助金등 일부 UR협정은 1-3년간의 이행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협정이 발효일부터 適用되므로 94년 중에 부문별로 해당부처에서 관련법규에 대한 檢討作業이 進行되어야 함.

2. OECD 加入基盤 造成

(1) 韓 · OECD 協力の 進展

—OECD와의 협력증진은 國際的 役割의 제고, 先進國과의 정책협회의 원활화, 제도와 관행의 國際化 촉진에 큰 的의를 가짐.

- 한국경제의 규모확대와 기업활동의 汎世界化 추세 속에서, OECD와의 협력은 先進經濟와의 협의를 통해 主要經濟懸案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힐 수 있는 방안임.
 - 또한 高度화된 경제운영방식에 관한 OECD會員國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90년대의 새로운 貿易懸案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경쟁정책 등에 대한 우리의 政策啓發에 활용할 수 있음.
- 韓 · OECD 관계가 심화되어 OECD에 가입할 경우, 서비스교역 自由化, 對外資本移動 自由化義務, OECD회원국으로서의 政策運用守則 등 우리경제가 단시일내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國際化, 開放化를 향한 국민의 합의와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비추어 볼때, 향후 OECD에의 正式會員國으로서의 가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自由化 負擔 등은 오히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의 國際化를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인식하여야 함.
- OECD와의 協力은 OECD회원국과 아시아高度成長國(DAEs: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間 workshop의 상호개최, 개별전문위원회와 OECD 연관기관에의 옵저버 참여 및 정식가입, 韓 · OECD間의 韓國經濟檢討會議의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1989년에 시작된 OECD와 DAEs간의 workshop을 상호개최하여 貿易政策, 租稅, 投資, 金融 등 협력분야에 관해 상호협의를 계속하여 옴.
 - 또한 1990년의 OECD조선작업반에의 正會員 가입을 시작으로, 1992년에 개발센터, 1993년에는 原子力機構와 鐵鋼委員會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외에도 貿易, 經濟動向檢討, 工業, 環境, 競爭政策, 教育 등 6개 개별위원회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등 최근에 들어와 韓 · OECD間의 協力關係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 이미 과학기술정책, 자본이동 및 經常貿易外去來,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금융시장, 재정, 보험 등 6개 委員會에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1994 년내에 經濟政策委員會를 위시하여 7개 위원회에 대해 가입을 추진할 예정임.

(2) OECD의 새로운 役割

- OECD는 최근 유럽중심의 先進國間 경제협력체로부터 汎世界的 경제협력체로의 성격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유럽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OECD는 멕시코, 한국, 東歐圈經濟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으로써 회원국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 OECD內的 협의현안도 貿易自由化, 선진국간 經濟協力次元으로부터, 환경, 경쟁정책, 노동시장, 기술 등 汎世界的인 경제협력차원의 현안으로 확대시킴으로써, 先進國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OECD의 役割을 모색하고 있음.
- 會員國의 확대와 관련하여 멕시코의 가입신청과 그 후속협상과정에 비추어 볼 때,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에 관한 자유화규약의 이행측면 등 새로운 회원국에 대한 加入要件이 더욱 엄격해지려는 움직임도 있음.

(3) 우리의 對應

- 新경제5개년계획 후반기인 1996년까지는 OECD 加入이 가능할 수 있도록, OECD 諸規程에 대한 검토와 OECD 각종 분야별전문위원회에의 參與擴大가 필요함.
 - OECD 諸般規程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國內外的 諸般制度의 정

비방안을 포함하여 OECD加入에 대비한 汎政府次元의 가입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個別專門委員會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활동참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擴大해 나가야 함. 또한 競爭政策, 汎世界化와 勞動市場 등 90년대의 새로운 무역 정책현안에 관하여 개최될 OECD와 DAEs간의 workshop에 적극 참여하여 相互理解의 폭을 넓혀나가야 함.
- OECD 가입 등과 관련 상호정보교환에 관한 韓·OECD間 協力을 확대해 나가야 함. 관계부처와 OECD 관련사무국간, OECD/OLIS 주관기관인 KIEP와 國內의 관련전문기관간의 정보수집과 교환체계가 더욱 組織化되어야 함.
- 파견·연수 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OECD 專門家의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임.

-또한 순조로운 OECD 가입을 위해 國內與件을 조성하여야 함.

- OECD 가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自由化와 서비스시장 開放化計劃과 연계하여 舉國的인 국제화 추진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함.
- OECD 가입요건인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의 自由化規約履行 및 對開途國 公的開發援助(ODA)제공 등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예산, 제도적 調整을 실시하여야 함.
- OECD 가입의 경제·사회적 國際化에의 기여에 대한 홍보를 통해 OECD 가입에 대한 국민적 理解를 넓혀가야 함.

3. 國際環境問題

(1) 現況 및 展望

-1994년에는 環境問題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國際經濟 懸案으로 부각될 것임.

○ 94년은 UN持續開發委員會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를 頂点으로 한 國際環境規範에 의한 議題 21 및 國際環境協約의 이행상황 점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임.

○ UR협상 妥結 이후의 新라운드에서는 貿易-環境問題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先進國의 각종 民間團體에서 환경문제를 生産, 消費, 交易 등 모든 經濟活動에 대하여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됨.

-CSD에 의한 議題 21 이행상황에 대한 年次別 評價計劃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조항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임.

○ 1994년도에는 매년 평가대상으로서 국제협력·소비행태·각 그룹의 역할·技術 및 財源 등 17개 분야와 다년차 평가대상으로 保健·人間定住·淡水·유해화학 물질·폐기물·방사성 폐기물 등에 대한 이행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시행되며, 기술이전과 재원에 대한 협상이 실무그룹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 몬트리올 議定書 개정안에 따라 할론은 1994년부터 100% 삭감, CFC는 1994년부터 75% 삭감, 1996년부터 100% 삭감되며, 過渡 物質인 HCFC는 1996년부터 1989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2004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삭감됨.

○ 바젤協約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植物의 交

易에 관한 協約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따른 일부 원료의 수입제한 조치 등과 함께, 氣候變化協約이 1994년 4월 발효됨에 따라 國家報告書 작성 의무가 부과될 것임.

-또한 그린라운드의 胎動으로 표현되는 環境-貿易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올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94년 4월에 개최될 GATT 閣僚會議에서는 貿易-環境問題에 관한 작업반의 보고서에 대한 討議와 採擇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WTO 내에 環境-貿易委員會가 설치되어 貿易-環境問題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됨.

○ 貿易-環境問題는 다자간 체제내에서 환경을 근거로 한 貿易規制를 보장받고 강화하려는 환경주의자 및 선진국내 일부 이해집단의 주장과 함께, 각국의 國內環境措置, 國際環境協約, 일방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貿易歪曲과 多者間 貿易規範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자유무역 우선적인 논의 방향의 두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

-환경을 근거로 한 무역규제의 多者間 貿易規範化 움직임은 先進國,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환경주의 그룹과 일부 산업 및 노조 등 이익집단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環境主義者들은 環境保護를 위한 貿易規制條項이 GATT/WTO의 多者間 貿易規範內에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NAFTA의 환경관련 부속협정과 같은 규정을 GATT/WTO에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음.

○ 환경을 근거로 한 무역규제 논의는 GATT XX條의 강화와 확대 및 生産工程의 環境適合성과 관련된 기술장벽 적용의 허용 여부, 그리고 기술장벽 조항의 環境분야 적용대상 지역이 輸入國에 국한되는지 또는 輸出國

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이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당분간 GATT/WTO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環境 原價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相計關稅의 허용 여부, 그리고 환경을 근거로 한 세이프가드 허용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그린라운드에서는 환경을 근거로 한 貿易規制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國內環境措置가 실질적으로 무역왜곡 효과를 가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多者間 規範 제정도 논의될 것임.

- 이 분야는 競爭政策, 投資, 知財權 등 관련 분야의 협상이 國內政策 관련내용을 포함하듯이 貿易關聯 環境措置 (TREM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의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큼.

-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보다 規制的이고 複雜한 환경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선진국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국내환경정책을 국제규범의 통제하에 둘 길을 열어줌으로써 환경원가의 차이에 근거한 相計關稅 등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논리적으로 受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로 생각됨.

- 多者間 通商協商으로서의 그린라운드는 1차적으로는 각종 조치들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통상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될 것임.

- 따라서 그 내용은 議題 21, 각 國際環境協約, 各國의 一方的 措置, 각국의 國內 環境措置들과 多者間 貿易規範과의 조화를 위한 작업이 주가 될 것이며,

- 환경을 근거로 한 상계관세, 기술장벽 등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이 채택된다면 그것은 多者間 機構보다는 선진국 消費者 團體의 움직임, 그리고 일

부 선진국의 일방적 무역조치 立法化, ISO 18000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 등이 광범위하게 채택·적용되고 나서 그것을 그린라운드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체계화하는 순서를 밟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의 對應

—國際環境問題에 대한 대응은 議題 21과 國際環境協約 등 국제적 의무사항에 대한 적극적 履行과 함께 이를 國內 環境·經濟·社會政策에 효과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 될 것임.

○ 이를 위하여는 議題 21의 各 章別 履行課題를 적시하여 실행항목화하고 이에 대한 입안·이행·점검을 행할 국가적인 시스템을 地球環境對策會議를 중심으로 구성·가동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전원공급계획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 環境規制 대상이 될 汚染誘發的 產業에 대한 支援 撤廢, 環境비용을 반영하도록 각종 가격구조의 개편, 環境영향평가의 확대실시, 環境適合的 產業構造로의 調整을 유도할 稅制改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OECD 加入에 대비한 環境 관련 가입요건에 대한 검토와 준비, 동북아 환경협력 등 지역환경협력 추진 등도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貿易-環境問題에 대한 協商 차원에서의 대응은 우리나라의 政策主權을 守護하고 무역을 통한 利益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임.

○ 그 근거로서 環境保全을 위한 貿易規制보다는 각국의 자발적인 環境政策이 보다 厚生増大的이며 환경에도 유익하다는 經濟理論的인 측면과 함께 環境政策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주권사항에 속한다는 法理論的인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環境-貿易問題의 논의의 場을 雙務的 채

넬이나 地域機構보다는 多者間 機構內에서 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선진국의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이익집단 등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환경관련 국제동향의 추진주체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들의 동향과악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國際 環境問題에서 개도국 그룹을 대표하는 主要 國家와의 정보교환 및 連帶協商 戰略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韓 · 美 經濟協力

(1) 現況과 課題

— 최근 韓 · 美 經濟協力關係는 한국의 對美貿易收支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韓 · 美 企業環境改善方案(PEI: 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의 좋은 성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수년간 우리의 총수출은 중국, 동구등의 시장의 개척에 힘입어 신장세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對美輸出은 부진했었음. 결국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우리의 市場占有率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表 IV-1〉

韓國의 對美貿易 推移

(단위: 백만달러)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90	19,360	16,942	2,418
1991	18,559	18,894	-335
1992	18,090	18,287	-197
1993(1~11月)	16,526	16,310	216

자료: 상공자원부, 「무역동향」

있음.

- 지난 수년간 유지되어온 韓·美間의 무역수지 균형추세는 양국간의 교역량이 증가되면서 이룩된 擴大均衡이 아니라 총교역량이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면서 이루어진 縮小均衡 현상임.

- PEI는 지난 92년 1월에 개최되었던 韓·美 頂上會談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것으로서, 양국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양국정부가 積極 支援함으로써 양국간 通商問題를 원만히 해결함과 동시에 보다 긴밀한 經濟協力關係를 구축한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었음.

- PEI에서는 標準, 通關, 投資, 技術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標準, 通關, 投資分野는 미측이 제기한 분야이며, 技術分野는 우리측이 제기한 분야였음.

- 이들 4개분야중 표준과 통관분야는 PEI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채택된 兩國 共同勸告案의 履行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投資 및 技術分野에서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보다 근원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그러나 양국 모두 PEI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양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PEI와 유사한 형태의 經濟協力 및 對話機構를 만들자는 데 합의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지난 7월의 한·미 정상회담시 韓·美 經濟協力對話(DEC : 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協議體의 창설에 양국이 합의하였음.

- DEC의 주요목적은 양국이 經濟關聯 規制緩和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는데 있음. DEC에서 논의될 주요분야로서 미국측은 外國人投資環境改善 및 規制緩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측은 産業協力과 科學技術協力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DEC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측은 韓·美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産業構造를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기업간의 産業協力促進과 科學技術協力事業의 추진을 주로 주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상사주재원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협정 체결, 수입품에 대한 상대국 검정결과 상호 인정, 그리고 한국의 OECD 가입, 우루과이라운드 및 APEC 등 世界的, 地域的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通商法 제도운영이나 일부 貿易·投資 관련제도가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내 우리 기업의 營業活動을 제약하는 주요 규제조치로써 反덤핑調查, 외국계 기업에 대한 課稅強化와 세무사찰, 美 통상법 301조의 운용등을 지적하고 있음.

미측은 우리의 「新경제」 5개년 계획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세제, 금융, 행정규제완화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韓國이 아시아지역에서 外國人投資 環境이 가장 열악한 국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투자와 관련하여 外國人投資 개방확대, 投資節次·간소화, 외국인 土地取得制限 완화, 외국기업의 자금조달 제한 완화 등 外國人 投資環境 改善方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그 외에도 한국내 미국기업의 營業活動을 제한하는 規制措置로서 복잡한 취업비자 발급절차, 檢疫·通關節次의 불투명성, 公正去來委員會의 국제계약 심사, 국제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표준규정, 외국기업의 광고규제, 유통시장 참여제한, 그리고 세제상의 제약 등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주요관심인 産業協力和 技術協力 그리고 미국의 관심분야인

투자분야는 이미 PEI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분야이므로, 앞으로의 DEC 推進過程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미 미측은 우리측이 쌍무적인 경제협력대화에 있어서 世界的·地域的 經濟問題에 관한 협력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兩國間 産業協力の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미 양국 모두가 PEI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DEC를 통한 兩國間 通商問題 解決 등 經濟協力の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양국이 DEC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양국은 앞으로 DEC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미간에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韓·美 通商關係도 전반적으로 원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우리의 對應

- 세계최고의 製品들이 경쟁하고 있는 세계 최대 單一市場인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에 뒤져서는 결코 우리의 國際競爭力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불가능해 질 것임.

○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미국시장에서의 占有率 유지 내지는 증가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임. 특히 최근 미국경제의 回復勢가 완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1994년도에도 이러한 回復勢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따른 미국의 수입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므로 이를 우리 상품의 對美

輸出增加의 好奇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양국간의 총교역량 감소 추세는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한·미 양국 모두가 앞으로 양국간 交易量을 증가시키면서 무역수지 균형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력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韓·美間 경제협력 대화 채널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PEI의 성과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 우선 PEI는 쌍무적 通商問題들이 미국의 수퍼 301조와 같은 威脅的이고 一方的인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 주었음을 강조해야 함.

○ 이와 함께 駐韓美商工會議所(AmCham-Korea)와 한국내 미국기업인들도 PEI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임.

- 韓·美間 통상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국제화/개방화 의지를 미측에 확실히 보여주어 우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PEI 및 기타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실천해야 될 것이며, DEC를 통한 양국간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확고한 開放化意志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外國人投資 環境改善 및 규제완화에 있음을 감안할때, 국내의 外國人投資 관련 제도 및 環境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外國人投資를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임.

- 또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도 外國人投資를 적극 유치해야하며, 이와 함께 國內의 知的財産權 보호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앞으로 전개될 DEC의 추진과정에서 우리는 韓·美間 技術協力과 技術移轉을 위하여 미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양국간에 개최되고 있는 技術市場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 획득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임.

5. 韓日 經濟協力

(1) 現況과 課題

— 韓日 經濟關係에 있어서의 懸案問題는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 큰 폭으로 增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對日貿易赤字와 우리나라의 技術導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온 日本에서의 기술도입이 최근 크게 不振한 상태에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對日貿易赤字는 93년 1-11월 기간중 약 77億 6,100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여 92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수출이 92년에 비해 1.4%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하였기 때문임.

○ 93년중 우리나라의 對日輸出이 감소한 것은 鐵鋼, 電子部品 등 일부품목의 對日수출은 93년 2월 이후 계속된 恩貨價値의 절상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增加한 반면, 纖維製品, 수산물 등과 같이 對日輸出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의 수출은 不振이 계속되었기 때문임.

○ 반면 對日輸入이 증가한 것은 電子, 電氣部品, 기계류의 對日수입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94년에도 電子部品 및 製品 등 특정품목의 對日수출은 크게 增加할 것이나 섬유 등 對日수출에서 큰 比重을 차지해온 품목의 輸出은 不振이 예상됨에 따라 對日貿易赤字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日本은 한국에 대한 最大의 投資國이었으나 91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92년 일본의 對韓투자 90년의 50% 수준인 70건 정도에 그쳤고 9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음. 이와 함께 日本에서의 技術導入도 91년 이후 크게 減少하는 추세에 있음.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및 技術移轉이 減少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80년 대말 이후 우리나라의 投資環境이 크게 惡化된 반면 일본기업의 아세안 등 後發開途國으로의 進出이 급증하면서 한국에 대한 投資, 技術移轉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또한 韓國政府의 기술도입에 대한 지나친 規制 및 한국에서의 일본기술에 대한 낮은 評價, 우리나라의 直接投資 誘致보다는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기술도입 置重경향도 일본에서의 技術導入 不振을 招來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및 技術移轉의 감소로 일본의 對外기술이전에서 차지하는 韓國의 比重은 최근 크게 減少되는 추세에 있음.

-한편 韓日 양국은 이상과 같은 懸案問題에 대한 懸隔한 見解차이와 過去史 문제와 관련한 國民感情의 악화 등으로 최근 몇년간 疎遠한 관계가 계속되었음. 그러나, 93년중에 양국 모두 新政府가 출범하고 작년 2월 이래 엔貨의 급격한 切上이 진행되면서 이를 계기로 상호 協力の 必要性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擴散되고 있음.

○韓國政府는 사실상 일본으로부터의 輸入抑制를 위해 운영해왔던 輸入先多變化 제도의 점진적 縮小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교섭이 進行되

어 온 한국에서의 日本 知的財産權 保護문제도 일본의 知的財産權에 대해 EC에 대한 보호와 동등한 水準으로 保護하기로 결정하였음.

- 日本政府도 최근 貿易不均衡문제 등 한국과의 懸案問題 해결에 보다 積極的으로 나설 것임을 表明하고 있으며, 엔貨의 급격한 切上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한국기업과의 戰略的인 提携 등을 통한 협력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음.

— 韓國, 美國의 利害와도 직결된 문제인 日-北韓間 修交交渉은 91년 11월이후 중단되었으나 최근 美-北韓간 核問題에 관한 교섭 타결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日本政府는 北韓과의 수교교섭에 意慾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日-북한 修交문제가 進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이 韓日經濟 관계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의 모든 分野에서 縮小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일본에게 있어서의 韓國의 比重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현안인 무역수지 赤字의 縮小, 對日기술도입의 활성화, 한일 經濟協力 분위기의 擴散 등을 통해 韓日經濟 關係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對日貿易赤字 문제는 對日수입억제와 같은 縮小均衡 지향이 아니라 對日輸出의 확대를 통해 對日貿易赤字를 축소시키는 積極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또한 감소경향에 있는 對日기술도입을 擴大시키기 위한 환경정비도 시급한 과제임.
- 한편 최근 韓日間 經濟協力の 필요성에 대한 認識의 擴散 분위기는 이와 같은 懸案問題 해결에 좋은 기회임으로 이러한 兪圍氣를 보다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우리의 對應

—對日수출의 擴大를 위해서는 輸出擴大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競爭力 強化, 日本企業의 投資誘致를 통한 對日輸出 확대, 中小企業의 韓·日 綜合商社와 의 연계강화 유도 등의 방안이 積極的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93년 우리나라의 對日수출은 전체적으로는 不振했으나 우리나라가 아세안 등에 비해 競爭力을 가지고 있는 鐵鋼, 電子部品 등 특정분야의 輸出은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이들 분야의 경쟁력 강화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 또 아세안 등에 진출한 日本기업의 本國에 대한 逆輸出이 이 지역의 對日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日本기업의 投資誘致를 통한 對日輸出 확대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對日수출의 擴大를 위해서는 國內 中小企業과 韓日 綜合商社와 의 연계강화를 유도하여 종합상사의 情報力, 資金力과 중소기업의 生産力을 연결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일본의 韓國에 대한 技術移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日本기업의 投資誘致, 日本내에 技術研究所 설치 등과 같은 積極的이고 戰略的인 접근이 필요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技術導入은 라이선스 공여에 의한 기술도입이 中心이었으나 直接投資의 유치 등을 통한 分業關係의 확대 및 이를 통한 技術移轉의 활성화와 같은 日本技術에 대한 長期的이고 戰略的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日本내에 技術研究所의 설립, 日本기업에 대한 資本參加를 통한 技術에의 接近, 退職 日本기술자의 招聘을 통한 기술지도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最近 양국 政府, 企業 차원에서의 相互協力 필요성에 대한 認識의 擴散은 앞으로의 한일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에 肯定的으로 작용할 것이나, 90년대에 들어와 일본에게 있어서의 한국의 比重이 급속하게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對應하는 노력이 필요함.

○ 90년대 들어 일본에게 있어서의 韓國의 比重은 무역, 해외투자, 安保 등 거의 모든 分野에서 急速하게 작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이를 계기로 韓日 관계를 보다 客觀的이고 冷徹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본을 보다 깊이 理解하기 위한 綜合的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임.

—日-北韓 修交問題에 대해서는 兩國의 관계 進展이 북한의 開放을 促進하고 南北韓 관계의 實質的인 改善에도 도움이 되도록 外交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韓 · EU 經濟協力

(1) EU統合 現況 및 展望

—1993年 11月 1日 마스트리히트條約의 발효에 따라 기존의 EC는 유럽聯合 (European Union: EU)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음. EU는 기존 EC의 강화, 共同外交 · 安保政策 및 法務 · 內務協力の 세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EC기능의 강화에 있어서는 單一市場과 共同通商政策, 共同農業政策 등 共同政策을 바탕으로 빠르면 97년까지, 늦어도 99년까지 유럽中央銀行을 창설하고 單一通貨를 도입함으로써 經濟通貨同盟(EMU)를 형성하고, 유럽시민권 및 공동사회정책이 도입됨.

-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은 회원국의 외교정책을 조율하고 서유럽동맹(WEU)을 활성화하여 유럽의 독자적인 安保政策을 追求할 것임.

- EU와 EFTA는 1991년 10월 유럽경제지역(EEA)의 형성에 합의하였으며, 그 동안 EFTA회원국중 國民投票에서 조약안이 否決된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참여국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EU 12개 회원국과 EFTA 6개 회원국은 1994年 1月 1日 EEA를 출범시킴.
- EEA의 출범으로 EU와 EFTA 18개국은 商品, 사람, 資本 및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單一市場이 됨에 따라 EEA는 유럽 18개국 總人口 3억 7천만명, GDP 7조 5천억달러, 世界貿易의 약 44%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EFTA국가 GDP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4개국은 현재 EU가입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1995年 1月 1日 EU가입이 예정되어 있음.

- 따라서 EU는 1995年 16개 회원국으로 확대되며 經濟政策 뿐만 아니라 共同 外交 · 安保政策까지 수행하는 高度의 統合體로 등장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이 더욱 提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經濟協力 現況과 課題

- 1993년 6월 EU각료이사회가 韓國關係檢討報告書를 승인하여 우리나라와의 관계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월의 韓 · EU각료회담에서 知的財産權이 완전히 타결됨에 따라 심각한 현안은 해소된 상태이고, 韓 · EU基本協力協定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韓 · EU협력증진 분위기

기가 형성되고 있음.

-對EU 輸出은 199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6년에는 14%였으나 93년 현재 11%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對EU 貿易收支도 1988년의 21억달러 黑字를 정점으로 점차 흑자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며, 1991년에는 1.5억달러 赤字로 反轉되었고, 93년(1-10월)에는 9.9억달러로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對EU 品目別 輸出에 있어서는 1993년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한 電子·電氣와 자동차를 비롯한 機械類 및 輸送機器가 13-23%의 증가를 보였으나, 섬유, 신발, 철강 등 과거 주종품목은 -20%~-38%의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되는 등 품목별로 明暗이 엇갈리고 있음.

○이와 같은 對EU 수출부진은 EU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의 둔화, EU의 市場統合에 따른 무역의 域內로의 전환, EU의 빈번한 對韓 수입규제의 발동 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競爭力 弱化에 따른 경쟁상대국에 의한 시장잠식이 큰 요인인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의 對EU 直接投資는 93년 11월말 현재 투자실적기준으로 3억 5천만달러로 최근 5년간 3배이상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總海外直接投資중 비중은 아직 5.9%로 北美(38%)와 東南亞(34%)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임.

○업종별로는 製造業 및 貿易業이 각각 48%와 50%를 점유하여 우리나라 對EU 直接投資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對EU 直接投資가 부진한 것은 현지의 높은 人件費, 높은 현지부품사용의 무수준, 현지 노동조합과의 마찰우려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EU의 對韓 투자는 최근 製造業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이나, 외국인투자총액

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9월말 현재 19%를 차지하여 日本(40%), 美國(29%)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우리나라의 EU로부터의 기술도입은 주로 獨逸, 英國 및 프랑스에 치중되어 있으며, 1993年 8月末 현재 1,119건으로 美國(2,289건) 및 日本(4,234건)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우리의 對應

-EU통합의 深化와 擴大는 역외국가들에게 市場擴大라는 긍정적 측면과 유럽 요새화라는 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보임. 그러나 EU통합의 진전은 세계경제의 地域主義化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EU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경제기구에 속해 있지 않고 대외의존적인 국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亞·太지역내의 경제협력의 강화로 亞·太지역내에서의 기능적 통합을 시도함과 동시에 EU의 각회원국과 雙務協力을 확대하고 韓·EU기본협력협정의 조기체결로 韓·EU협력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임.

○EU의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강화, 反덤핑 등 輸入規制의 강화 및 상호주의의 요구 등 경제통합체가 가진 고유의 속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貿易에 있어서 우리의 주종수출품목은 현재 競爭力을 상실하고 있거나 輸入規制에 걸려 있어 수출증가에 한계를 맞고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상품은 中國, ASEAN국가 등과 경쟁이 어려운 형편에 있음. 따라서 EU市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적극적인 輸出增大戰略을 개발·시행해야

할 것임.

- 전기·전자, 기계류 및 수송기기분야에서의 比較優位를 강화하여 EU와의 산업내 무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複合商品 및 新商品의 개발과 현지기업간에 利害關係를 형성할 수 있는 중간제품 및 부품수출의 확대로 수입규제의 완화 또는 사전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中小企業製品에 대한 현지수요를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우리 중소기업에 연결시키는 채널의 확대가 요구됨.
- 회원국별 시장관리에서 EU를 하나의 시장으로 한 品目別 市場管理로 전환하고 이에 적합한 유통채널의 구축이 시급히 요망되며, EU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는 新商品의 소개와 최신정보의 교환을 위한 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이 지역에 대한 海外 直接投資는 현지생산이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商品輸出, 技術導入, 서비스交易의 自由化 및 市場情報의 수집 등도 감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임.

- EU기업의 對韓 投資에 있어서는 우리의 外國人投資 자유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지에 投資誘致事務所 등을 개설하여 長期的인 투자유치 채널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현지기업과의 通商摩擦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진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現地企業과 産業 및 技術協力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현지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추진과 현지기업 인수에 의한 진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産業別 또는 品目別 組合과 EU의 해당조합과 世界市場 및 地域市場에 대한 정보교환 등 유대강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7. 韓 · 中經濟協力

(1) 現況과 課題

- 韓中 經濟交流은 1992년 8월의 수교이후 각 部門別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간의 經濟的 相互依存度가 심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와 要素賦存 및 經濟成長段階의 측면에서 높은 보완성을 가진 中國이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 기인함.
 - 또한 양국간의 地理的 · 文化的 인접성이 經濟交流의 급속한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中國은 92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제3대 輸出對象國으로 등장하는 등 輸出市場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특히 對中國 輸出이 지난 2년간 1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이 기간 중 우리의 전체 輸出增加를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93년중 對中國 輸出(間接輸出 제외)은 50억달러에 이르러, 우리 總輸出의 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다만 최근들어 輸出增加率 자체는 상당히 下落하고 있음.
 - 그러나 中國經濟의 고도성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中國市場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임.

- 中國의 輸入市場으로서의 잠재성도 대단히 커서, 이미 農水産物과 일부 鑛物資源의 주요 공급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은 92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93년중에는 약 39억달러로서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 수준에 있음.

○ 그러나 최근 다시 輸入增加率이 상승하고 있으며, 輸入品目이 각종 산업용 원자재 및 소비재로 다양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輸入增大가 예상됨.

-中國은 또한 풍부한 低賃 勞動力, 값싼 土地 및 방대한 市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海外直接投資 대상지로 등장하고 있음.

○ 80년대 후반 國內의 급격한 賃金·地價 上昇 및 ASEAN·中國 등 後發開 途國의 급속한 産業化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업종의 기업들이 中國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음.

○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언어가 통하는 약 200만의 교포의 존재가 對中國 投資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中國의 고도성장에 따라 12억 인구의 방대한 市場規模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中國의 內需市場을 겨냥한 投資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中國은 92년이후 우리의 最大 海外投資 對象國(허가기준)으로 등장하여, 93년 한 해동안 약 500건, 5억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짐.

-한편 中國의 입장에서 韓國은 제7대 교역대상국(中國統計 기준)에 해당하며 外國人直接投資 제공의 측면에서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있지만, 經濟交流의 증가속도나 내용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음.

○ 韓國과의 交易額이 中國의 總交易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으로 7번째 교역대상국이지만, 교역 증가속도의 측면에서는 1위라고 할 수 있음.

○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누계에서 韓國의 비중은 1% 정도로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92년 이후로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중 80% 이상이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華僑資本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가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성격

의 투자를 韓國企業에 기대하고 있음.

- 또한 華僑圈의 投資가 廣東省을 중심으로 揚子江 이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山東省, 東北3省, 天津市 등의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

— 韓中 經濟關係上의 주요 현안으로는 우리측의 中國商品에 대한 輸入規制 조치와 우리 기업의 자동차, TDX 등 基幹産業의 中國市場 진출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우리측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20여 중국상품에 대하여 調整關稅를 부과하고 있는 데, 우리측의 貿易黑字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中國側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TDX 등의 中國市場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政府에서도 中國과의 産業協力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 데, 中國側의 허가 여부 및 조건 등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2) 우리의 對應

— 兩國經濟의 中長期的 전망에 기초하여 中長期的인 協力方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兩國經濟는 보완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協力과 競爭의 兩面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
- 兩國經濟의 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中國市場 진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交易·投資와 더불어 資源, 科學·技術, 交通, 環境 등 각 부문별로 중장기적 협력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임.
- 中國의 성장에 따른 世界 및 國內市場에서의 경쟁격화는 기본적으로 國內 産業構造의 調整과 競爭力 強化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一兩國間 經濟協力を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延拂輸出資金, 海外投資資金 등의 可用財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특히 對外經濟協力基金을 적절히 활용하여 民間企業의 中國市場 進出을 直·間接적으로 支援할 필요가 있음.

- 一國內産業 보호를 위하여 20여 中國産 製品에 부과하고 있는 調整關稅 등 輸入規制 措置를 점진적으로 해제하여 쌍무적 通商摩擦의 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一中國의 分權化된 현실과 地域別 特性을 고려하여 주요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中國의 省級機關과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우리측의 對應體制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一對中國 輸出品目の 다양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輸出 伸張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韓國商品의 可視性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商標가 명시된 耐久消費財 輸出 및 광고, A/S 등의 市場管理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流通業 部門의 投資를 통한 消費財 수출 증대도 도모해야 할 과제임.

- 一對中國 投資가 급증함에 따라 수반되어 나타나는 각종 副作用 및 施行錯誤를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 기관들간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投資企業의 經驗(성공·실패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整理·提供해 주

는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크게 부족한 상황에 있는 現地 投資企業 經營者 訓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8. NAFTA에의 對應

(1) NAFTA 推進과 經濟的 波及效果

- 1994年 1月 1日부터 미국·캐나다·멕시코를 會員國으로 하는 NAFTA(北美自由貿易協定)가 공식으로 발효됨.

- NAFTA는 자유로운 人的交流, 單一通貨體制의 실현은 물론 정치적 통합까지 모색하고 있는 EU와는 달리, 北美3國의 交易增進과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을 통한 무역증진 및 국제경쟁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순수 貿易協定임.

- 한편 關稅障壁의 撤廢, 投資機會의 擴大, 原產地規程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체결된 최초의 包括的 自由貿易協定(FTA)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FTA와 구별됨.

- 특히 NAFTA 협정문은 知的財産權, 環境問題와 같이 國際的 規範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各國의 通商政策 수립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評價를 받고 있음.

- NAFTA는 1992年 12月 27日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나, 國內立法 과정에서 산업 및 계층간의 異見이 노출됨에 따라 3국은 勞動과 環境關聯 조항의 補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附屬協定을 1993년중 체결하였음.

- 부속협정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환경문제 및 수입상품의 범람 등과 같은 사

항을 管掌할 北美委員會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음. 同委員會는 締約國의 勞動 및 環境 關聯 履行義務의 遵守를 감독하고 制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음. 그러나 締約國의 關聯規程 위반시 發動되는 制裁는 強制手段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NAFTA의 부속협정은 向後 미국이 체결할 모든 通商協定에 노동 및 환경관계자들의 간섭을 불리일으키는 先例를 남겨 놓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未備點에도 불구하고 부속협정은 NAFTA로 예상되는 산업피해 및 실업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明文化함으로써 各國의 反對輿論을 무마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어 窮極的으로 성공적인 NAFTA의 出帆을 이끌게 됨.

— 세계최대의 무역국인 美國을 주축으로 탄생된 NAFTA의 域內國에 대한 波及效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긍정적 效果로는 貿易障壁 撤廢에 따른 역내무역의 확대, 技術·資本과 노동력의 보완적 결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한편 미국과 캐나다의 勞動集約的 公害産業의 對멕시코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의 악화와 외국기업의 급격한 진출에 따르는 멕시코 關聯産業의 도산 등과 같은 自由貿易의 부정적인 효과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일반적인 분석은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함으로써 NAFTA가 北美經濟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또한 NAFTA의 결성이 締約各國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파급효과는 測定方法과 대상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順으로 NAFTA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NAFTA가 域外國에 미치는 일차적 파급효과는 域內國間 關稅引下에서 나타

남.

- NAFTA 協定들은 향후 15년에 걸친 會員國間 관세의 단계적인 철폐를 규정하고 있는 바, 3國間의 無關稅 교역을 가정하고 9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美 輸出 상위 50대 품목에 대한 關稅效果를 추정하여 본 결과 멕시코는 동품목에 대하여 약 4億 4百萬 달러의 對美輸出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예상수출 감소분은 최소 3千 5百萬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추정치는 原產地規程의 강화 및 기타 非關稅障壁의 철폐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상향 조정될 수 있으나, 北美經濟의 활성화에 따른 貿易擴大效果 역시 감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NAFTA의 效果는 우리나라의 대응 여하에 따라 장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2) 우리의 對應

- NA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輸出市場인 미국을 주축으로 결성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類似한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는 멕시코가 締約國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음.
- 70年代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의 對美 輸出은 88年 214億 달러를 기록한 이후 赤字로 반전되었으며, 83年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또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1988年 4.6%에서 1992年 3.1%로 낮아지고 있음.
- 반면 같은 기간 멕시코의 美國市場 점유율은 5.3%에서 6.6%로 상승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輸出品의 상대적 가격경쟁력 약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競爭力 強化 方案을 모색함은 물론, NAFTA의 出帆이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最小化하며 안정적인 輸出市場의 확보를 위한 對應方案을 講究하여야 함.

- 地域主義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서 통상외교를 강화하며 UR과 같은 多者主義 협정에서 정립된 通商規範을 준수하여 쌍무주의적 通商壓力을 최소화하는 한편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通商懸案을 해결할 방안을 講究하여야 함.
- 특히 1985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멕시코의 經濟改革 및 國際化 政策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행 通商政策의 미비점과 폐쇄성을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檢討되어야 함.
- 향후 멕시코에 대한 直接投資의 확대는 대미수출기지 및 中南美市場 진출의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原產地規程 및 환경규정의 강화와 함께 선진국의 對멕시코 투자 확대에 따른 경쟁 격화와 賃金 引上 가능성과 같은 諸般投資要件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9. 亞·太經濟協力

(1) 懸案과 課題

-1993년 11월 개최된 APEC 씨애틀회의는 亞·太經濟協力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음.

- 이번 會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亞·太經濟指導者會議은 실질적인 정상회담으로서 亞·太經濟協力の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廣域經濟協力體로서 APEC의 대표성과 위상의 강화에 기여하였

다고 할 수 있음.

- 貿易·投資委員會(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가 설립됨으로써, 그동안 느슨한 協議體로 머물렀던 APEC이 보다 실질적인 협력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음.

씨애틀會議를 계기로 APEC의 向後 發展過程과 관련하여 새로운 可能性이 대두되고 있음.

- 씨애틀會議는 APEC 頂上會談의 새 章을 열었을 뿐 아니라, 역내의 巨視經濟懸案을 논의하기 위한 APEC 재무장관회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APEC 환경장관회의의 개최에 합의하였는 바, 향후 亞·太經濟協力은 무역·투자·기술이전 등 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거시경제정책조정, 環境, 安保協力, 文化 등 영역에서 보다 包括的이고 多面的인 확대과정을 밟게 될 것임.
- 政策協調의 실현은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輸出隘路인 미국의 보호주의적 경향과 일본시장의 閉鎖性, 그리고 그로 인한 역내무역갈등의 해소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APEC 정상회담이 定例化될 경우 정상간 안보대화를 통하여 냉전종식 이후 힘의 공백으로 부터 초래될 수 있는 局地紛爭의 위협, 중국 등 일부국가의 軍비팽창 움직임, 核擴散, 마약, 테러리즘, 환경오염 등 신종 안보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최근 일본이 “文化 APEC”의 추진을 제안하였는 바, 同 제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경우 亞·太地域 국가간 이질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뿐 아니라, 經濟, 安保 등 국가간 利害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의 협력진전에도 觸媒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亞·太地域協力の 求心體로서 APEC에는 出帆 당시부터 크게 두가지 動因,

즉 成長潛在力의 擴充과 開放的 交易秩序의 확립에 대한 요구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 對內的으로는 역내국가들의 경제력이 急伸張하고 교역·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국가간 相衝하는 利害를 조정하고 보다 自由롭고 開放된 교역환경을 造成함으로써 持續的 高度成長을 달성하고자 함.
- 對外的으로는 EC통합의 진전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의 확산에 대처하여 다자간 개방적 교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亞·太地域次元의 공동대응을 모색함.

— 씨앤티 APEC會議가 발족시킨 APEC 貿易·投資委員會는 貿易自由化, 貿易活性化, 社會間接資本 共同開發 등을 통해 域內的 경제협력 懸案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될 것임.

- 同 委員會가 1994년에 다루게 될 協力課題는 投資, 中小企業振興, 通關節次 簡素化 등 1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協力對象의 優先順位나 貿易自由化의 推進日程 등에 관한 회원국간 異見으로 말미암아, 短期間에 괄목할 進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타결, NAFTA의 出帆 등 최근 국제경제정세의 變化는 APEC의 향후 展開方向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할 것임.

- APEC은 출범 초기부터 貿易블럭으로의 가능성을 排除하였는 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1993년말 타결됨에 따라 EC 등 域外지역의 무역블럭에 대한 對抗的 성격의 블럭으로의 발전보다는 域內 協力體로서의 指向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될 것임.
- 만약에 우루과이라운드가 1993년말 타결에 失敗하였다면, APEC은 汎世界的인 무역자유화 과제들을 亞·太地域으로 옮겨서 논의하는 “縮小版 GATT(mini-GATT)”의 성격을 띠게 되었을 것임.

-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의 APEC은 GATT의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域內貿易自由화를 비롯한 投資活性化, 技術移轉 促進 등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다자간 교역질서의 보전을 위한 監視者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역내 固有의 협력과제로서 지금까지 APEC이 효과적으로 수행해 온 情報交換, 研究調查活動, 政策協議 및 對話를 위한 포럼으로서의 APEC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기존의 10개 협력사업(Working Groups)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NAFTA의 公式的 出帆 및 南美地域으로의 外延的 확대가능성은 APEC 내 일본을 비롯한 東아시아地域 國家들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NAFTA가 배타적으로 운용되어 동아시아지역의 通商利害를 저해할 경우 EAEC를 중심으로하는 동아시아지역의 결속이 모색될 가능성도 常存함.

- EAEC 구상은 회원국 대상을 동아시아지역의 국가들만으로 限定하고, 호주, 뉴질랜드 및 북미지역국가들을 排除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를 촉발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가들의 留保的 태도로 成事與否가 불투명했음. 그러나, 1994년 들어서 일본이 EAEC에 참여할 뜻을 시사함으로써 同 기구를 둘러싼 논쟁이 再燃될 조짐임. 일본은 NAFTA의 배타적 운용을 견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EAEC구상이 실현되도록 적극 同 參할 뜻을 밝힘.
- 향후 APEC의 廣域協力體(Umbrella Organization)로서의 성패는 EAEC가 포괄하고자 하는 東아시아經濟圈과 NAFTA를 軸으로 하는 北美地域經濟圈이 單一經濟圈으로 결속하도록 유도하는 指導力의 확립 및 調整力의 발휘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2) 우리의 對應

-우리나라는 제5차 씨애틀會議에서 새로이 설치된 貿易·投資委員會(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의 초대의장국으로 피선되었는 바, 이번 기회를 亞·太地域에 대한 우리나라 經濟外交의 前衛로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한국은 議長國으로서 先進國·開途國간 異見을 조정하고 무역자유화, 투자 활성화, 기술이전 촉진 등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이룸으로써 亞·太經濟協力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의 경제적 實利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임.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진출의 活路가 될 수 있는 ASEAN 諸國, 중국 등의 나라와의 友好的 상호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CTI 의장국으로서의 指導力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 기관, 기업계의 상호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國內對應體制를 수립하고 이를 亞·太協力の 支援體制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타 APEC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0개 협력사업에의 참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5차 씨애틀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巨視經濟調整, 環境, 教育, 文化 등 영역에 대하여도 積極的이고 前向的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APEC에서의 우리의 發言權과 位相을 최대한 강화하여야 할 것임.

-EAEC가 日本의 主導에 힘입어 구체화 될 경우 參與與否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

○일본이 사실상 盟主가 되는 EAEC의 結成은 잠재적으로 NAFTA의 불력화를 牽制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美洲圈 국가들의 排他的 結束을 초래할 수

-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EAEC에의 가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EAEC와 NAFTA의 역외 비배타성을 촉구하는 中立的 勢力으로 잔존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EAEC에의 加擔을 決定한다해도 同 機構의 개방성을 擔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국익증진을 위한 亞·太 經濟外交의 場을 APEC을 중심축으로 하여 多方面으로 심화·확대하여야 함.

- 어떠한 지역협력체에도 가담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다자주의와 개방적 교역질서에 대하여 비슷한 입장에 있는 中位圈 국가들과의 공동보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즉 超強大國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후발개도국과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中位圈 指導力(middle-power leadership)”을 적극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시장확보 및 경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하여 多者協力 및 地域協力과는 별도로 주요개도국과의 쌍무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장잠재력 및 資源供給先으로서의 위상, 해외투자대상 지역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ASEAN 국가들과의 雙務的 협력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경제외교의 主體를 정부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내경제협력체인 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太平洋經濟協力會議(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등을 통한 民間 經濟外交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10. 東北亞 經濟協力

(1) 現況 및 展望

—東北亞國家(日本, 中國, 극동러시아, 몽골, 南·北韓)間에는 賦存資源, 産業構造面에서 相互補完性이 크고, 貿易·投資面에서도 相互依存度가 높아 협력잠재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떠한 구체적인 「協力協議體」없이 학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왔음.

○ 현재 UNDP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은 政治·經濟體制가 상이한 동북아 국가간에 多者間 經濟協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일종의 試金石이라 할 수 있음.

—NAFTA, EEA와 같은 지역블록의 출범으로 1994년에는 東北亞지역국가간의 地域經濟協력에 관한 논의가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 政治·經濟體制가 異質的이고 경제협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각국간의 認識差가 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協力體’ 창설은 어려움.

—東北亞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日本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나 미국과의 관계, 동북아국가들과의 歷史的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꺼려하고 있음.

○ 다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니이카다 등 일본의 西北部지방을 중심으로 南北韓, 中國, 러시아極東지방과의 經濟協力관계의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94년 중 니이카다市에서 제6차 東北亞經濟協력에 관한 포럼이 개최될 예정임.

○ 일본 東部지역의 경우, APEC과 같은 범세계적 차원의 광범위한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면, 東北亞經濟協력과 같은 小地域協力(subregional

cooperation)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만일 美·北韓間의 核사찰문제가 일괄타결될 경우, 美·北韓 및 日·北韓間에 수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東北亞經濟協力도 지금까지의 답보상태를 탈피, 日·北韓間 교역확대, 남북한 경제교류, 두만강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중국과 북한 모두 東北亞經濟協력을 琿春 및 두만강 등 地域開發事業에 대한 西方企業과의 협력이라는 좁은 의미로 축소 해석하고 있어, 多者間 經濟協力の 본질을 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

-그러나 交通, 通信, 環境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분야의 경우 북한 핵사찰문제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1994년중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2) 우리의 對應

-東北亞經濟協力 必要性에 대한 인식과 協力潛在力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東北亞經濟協력이 성공될 수는 없으므로, 各國間에 相互認識隔差를 줄이고 實踐方案을 도출하는 정부·민간차원의 協議와 努力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경제협력은 우리의 資源導入先과 輸出市場을 多邊化시켜 줄 것이므로, 우리의 中間者的 立場을 최대한 활용, 多者間 경제협력을 통해 新市場개척과 新規投資 기회포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특히 동북아 최대의 資本·技術供與國인 일본과 合作投資, 콘소시움을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동북아국가간의 經濟交流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漸進開放을 유도하고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通商外交 노력과 公的 援助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中國이 점차 경제대국화하고 日本이 정치대국화함에 따라 이들 두 나라 간에 아시아 主導權을 둘러싼 爭奪戰이 심해질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이들 양국간의 경쟁과 대립을 우리 國益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政治·經濟·外交的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우리는 東北亞經濟協力추진에 관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몇개의 戰略的인 目標을 설정하고, 이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 南北韓 經濟交流과 東北亞經濟協力을 상호 연계추진함으로써 民族統合經濟基盤의 구축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東北亞國家間的 投資·金融 및 技術協力에 있어서는 中等水準의 經濟發展段階와 地政學的인 中間位置를 활용, 적극적인 媒介役割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 셋째, 航空運送요충지로서 서울의 戰略的 地位가 상승할 것이므로, 北京-서울-東京, 上海-부산-하바로프스크, 평양-부산-나이카다등에 直航空노선이, 그리고 釜山-나훗가, 仁川-天津등에는 海運航路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黃海와 日本海峽을 가로지르는 海底光케이블과 海底터널의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日·南北韓·中國間的 輸送·通信上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것임.

○ 넷째, 東北亞 국가간에 環境保護協力에 관한 논의가 적극화될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中國內 東北3省과 沿海地域의 급속한 工業化가 우리의 기후 및 生態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의 경우, 1994년 상반기까지 제1차 豫備妥當性 調査가 끝나고 두만강개발의 制度的 運轉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므로 1994년 한해는 TRADP의 성패를 좌우하는 分水嶺的이 될 것으로 보임.

○ 94년 2월중에는 TRADP의 經濟的 妥當性에 관한 UNDP의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5월중에는 제4차 PMC가 개최되어 同 보고서가 검토되고 ①土地貸貸와 豆滿江地域開發會社(TRADCO)의 설립, ②회원국 중심의 '政府間委員會'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설치, ③接境國 중심의 '豆滿江委員會'(Tumen River Committee)의 설치에 관한 3개의 수정된 國際協定文案이 토론·가서명될 것임.

○ 따라서 그 때까지는 TRADP의 구체적인 참여방식, 자본부담, 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이 정립되어야 할 것임.

○ 일·북한간에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이 TRADP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큼. 만일 일본이 정식회원국으로 참가할 경우, TRADCO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우리의 費用負擔이 적어지고 TRADP의 前途에 관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등 肯定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 특히 일본의 資本力이 우리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을 경우, TRADP가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戰略的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한편 일부 참가국들이 UNDP의 指導力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豆滿江開發事業은 UNDP 주도하의 '多者間 地域開發協力'과 함께 中國과 北韓이 UNDP 틀밖의 '二國間 協力'방식을 추구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것 이므로 우리정부는 지나치게 UNDP주관하의 多者間 協力에만 치중하지 말고 二者間의 協力方案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琿春開放區와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에 대한 진출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임.



V. 要約

- 마침내 지난 12월에 UR協商이 타결됨에 따라, 94년은 새로운 世界貿易秩序가 형성되는 元年이 될 것임.
 - 과거 GATT가 단순한 國際協定이어서 拘束力이 약하였던 데에 반해, UR協定은 강력한 世界貿易機構(WTO)를 설립하고 또한 그 範圍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世界貿易秩序를 안정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단, UR協商이 타결되기는 하였지만 이로서 多者間 協定이 종료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協商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UR協定으로 多者間 貿易秩序가 구축되었으나, 隣接國 혹은 經濟的 利害를 같이하는 國家間 地域主義 또는 地域內 協力強化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음.
 - 94년 1월 1일부터 유럽聯合(EU) 12개국과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6개국의 경제블럭인 유럽經濟地域(EEA)이 공식출범하며,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간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도 공식 발효됨.
 - 지난 11월 亞·太經濟協力(APEC) 지도자회담 이후 새로운 활력을 얻은 亞·太經濟協力도 94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또한 94년에는 環境問題가 중요한 對外經濟問題의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 94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環境開發會議에서 채택된 「議題 21」과 氣候變化協約 등 國際環境規範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임.
 - 또한 이미 一部에서는 次期라운드 주요 의제의 하나로서 環境問題가 거론되고 있음.

-93년중 침체에 빠졌던 世界經濟는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여 94년에는 3%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美國經濟는 94년에 2.6~3.0% 수준의 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93년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계되는 日本經濟는 94년에 2% 내외의 成長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심각한 失業問題에서 벗어나지 못할 EU經濟도 94년에는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94년 世界經濟 전망을 밝게 해 주는 主要因은 中國을 비롯한 東아시아地域 및 中南美 經濟가 高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世界景氣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世界貿易도 94년에는 5%~6% 신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이 94년에 예상되는 世界經濟環境의 變化가 우리 經濟에 주는 示唆點은 크게 ① 國際競爭이 격화된다는 점이고, ② 이에 따라 國內制度 및 政策의 적극적인 先進化가 요구되며, ③ 環境 등 새로운 分野에서의 國際協商에 대한 對備策이 강구되어야 하고, ④ 回復局面의 世界經濟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며, ⑤ 主要 交易對象國 및 地域과의 經濟協力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UR協定이 채택됨에 따라 市場開放措置와 外國人投資 自由化措置 등이 불가피해 질 것이며, 우리 企業들과 商品은 國內의 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競爭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이러한 競爭激化는 우리 企業에게 커다란 試鍊이자 機會를 의미하며, 격화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國家競爭力을 강화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됨.

UR協定後 새로운 貿易規範을 준수할 뿐 아니라, 새로운 國際環境에서 우리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國內制度 및 政策의 國際化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UR協定에 따른 國際貿易規範의 제정, 世界貿易機構(WTO) 설립 등 변화된 國際環境에 적응하고 96년까지 OECD에의 加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각종 制度 및 慣行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종전의 각종 規制的 制度와 政策이 우리 경제의 競爭力提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과감한 撤廢가 요구됨.

94년중 環境問題가 중요한 對外經濟問題로 부각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對備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國際環境問題에 대한 대응은 「議題 21」과 國際環境協約 등 국제적 의무사항에 대한 적극적 이행과 함께 이를 국내 環境·經濟·社會政策에 효과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임.
- 그러나 貿易-環境問題에 대한 協商 차원에서의 대응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임.

우리는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NAFTA와 EU 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APEC내 貿易·投資委員會(CTI)의 초대의장국으로서 APEC국가간 貿易自由化, 投資活性化 및 技術移轉이 촉진되어 地域間 經濟協力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높은 經濟成長을 보임에 따라 輸出市場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中國 등 東아시아국과 中南美地域과의 經濟協力 노력도 배가하여야 할 것임.

KIEP 發刊資料 案内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和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和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產業政策과 產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1]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鈺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 同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90.10)	蘇佾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 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A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 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 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 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 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 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金廷洙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 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政策資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1994年 1月 5日 印刷

1994年 1月 10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942-1番地君子빌딩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本 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等 禁許